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HEN GRANDPA JONAH WAS JUST A KID

가제 : 조나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저자 : Yannets Levi

출판사: Zmora Bitan / Kinneret Publishing House

발행일: 2017년 / 2019년 (3권 2020년 예정)

장르 : 문학/시리즈



* 국제적 베스트셀러 작가 야네츠 레비의 새 시리즈!

* TV, 장난감, 게임, 침대, 이불도 없는 가난한 아이 조나.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조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조나네 집에는 그 흔한 TV한 대도 없었고 갖고 놀 장난감은커녕 작은 몸을 누일 침대나 담요도 없었다. 하지만 요나는 결코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요나는 누구보다 모험심이 넘치는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심심하다거나 우울할 새가 전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이스라엘 조나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다. 어린 조나의 집에는 먹을 것도, 공책도, 가방도, 양말도 없었고 심지어는 포크나 나이프, 침구 같은 기본 생활 물품마저 없었다. 심지어 그의 집에는 바닥 조차 없어서 조나의 가족들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생활해야 했다. 사실상 '집' 이라고 조차 부를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소년 조나에게 주어졌던 것은 단지 셔츠 한 장, 바지 한 벌, 속옷 한 벌뿐이었고 밤에 잘 때면 오래된 신문을 매트리스와 이불 삼아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또한 조나는 가장 정교한 솜씨를 가진 도둑이기도 했는데 그 도둑질이란 그저 시장에서 오이나 감자를 훔친다거나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 조나는 절대 그런 물품들은 훔친 적이 없었다. 그가 훔친 것은 남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들이었다. 조나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조나의 한 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 짧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조나는 여느 때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마음에 들떠 밖으로 나갔다. 그때 만해도 그의 두 다리는 양쪽 모두 다 같은 길이였다. 그날 밖을 쏘다니던 중 조나는 저 멀리 어떤 높은 벽 근처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길 끝에 서 있었던 그 벽은 약 1.5 층 높이쯤 되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벽이 그곳에 언제, 왜 지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조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은 대체 그 벽 위에 올라서면 무엇이 보일지 알고 싶어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 벽 위에 올라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때, 조나는 잠시 벽을 살펴 보더니 벽에 난 작은 틈들을 닫고 서서히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조나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조나는 여태껏 한 번도 그렇게 높이 올라와 본적이 없었다. 모든 아이들이 조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과연 조나가 그곳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아이인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 때 그 중 한 아이가 조나에게 뛰어내릴 수 있겠냐며 물었고 조나는 심호흡을 한 후 바닥으로 착지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나는 뛰어내린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말았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나마 지금 자신들이 벌인 짓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과 누군가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나는 처참히 혼자 남겨진 채로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조나는 기절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 전체에 찌릿 거리는 통증이 퍼지는 바람에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곧 조나의 시야에 막대기 하나가 보였고 겨우 기어서 그 막대기를 손에 넣은 후 울며불며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 조나의 아버지 제이콥은 흠뻑 젖은 눈물로 범벅 된 아들을 살피며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닌지 이리 저리 다리를 흔들어보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확인 방법은 매우 흔한 것이었고 워낙 가난했던 터라 아버지인 제이콥조차 조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조나의 엄마 엘리사는 갑자기 불 같이 화를 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에 의사를 데려오겠다고 집 밖으로 나갔다. 병원에 간 엘리사는 마침 병원 문 앞에서 실연 때문에 울고 있던 의사를 마주쳤고 자신이 카드점으로 의사의 운세를 알려줄 테니 대신 그 값으로 아들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말했다. 약속대로 의사는 조나를 만나 진료까지는 해주었지만 조나의 집 형편상 김스를 할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결국 엘리사는 조나의 다리 주변에 밀가루 반죽과 기름을 섞어 붙여버렸다. 하지만 엘리사는 의사도 아니었고 그 마른 반죽 덩어리는 석고만큼 단단하지도 안았기 때문에 조나의 두 다리는 길이가 달라지고 말았다. 조나의 김스를 만든 후 엘리사는 감자 몇 덩이를 사와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프를 만들었다. 집에 냄비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피클이 담겨 있었던 깡통을 구해와 그 깡통에 재료들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조리를 했는데 얼마간은 아무 양념도 넣지 않은 수프에 피클 맛이 조금이라도 났기 때문에 다들 그 수프를 잘 먹었다. 하지만 곧 피클 맛은 사라졌고 식구들은 밍밍한 수프 맛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당시 어린 조나의 소원은 야채 수프를 한 번 먹어보는 것일 정도로 조나의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나의 엄마 엘리사가 몇 푼이나 벌 수 있었던 직장을 잃게 되는 바람에 조나네 가족은 모두 아사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조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상상력과 독창성을 동원해 가족을 구해낼 방법을 생각해내게 된다. 조나네 가족은 언제쯤 배불리 먹게 될 수 있을까? 조나가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자 소개>

야네츠 레비 (Yannets Levi)는 이스라엘의 소설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 TV 호스트 및 강사이다. 그는 열한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스라엘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목 : DARWIN'S DRAGON
가제 : 다윈의 용
저자 : Lindsay Galvin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모험



*** 다윈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뒤에 숨어 있었던 한 소년 심즈의 이야기에 흥미로운 상상력을 더한 소설**

1831년 12월 27일 찰스 다윈은 비글호를 타고 전설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뒤, 그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만난 진기한 생명체들을 연구하며 얻은 자료들을 고이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연구물들은 훗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 서적인 '종의 기원'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자산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비글호에서 다윈과 함께 했던 소년 조수 '심즈 컨빙턴'에 대한 이야기이다.

1835년 9월 갈라파고스, 젊은 다윈과 13살짜리 심즈는 까다로운 표본 수집을 마친 후, 이자벨라 섬의 한 거대한 거북이 껍질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윈은 모든 선원들이 비웃곤 했던, 손수 만든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었다. 비글호의 항해가 시작되기 4년 전, 심즈는 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다윈의 요청에 따라 심즈는 다윈의 어린 조수가 되었고 친절한 다윈 덕분에 글을 읽고 쓰는 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신비한 동물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까지 배울 수 있었다. 한참 탐사가 진행되던 중, 다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 위를 올려다 보았다. 불길한 날씨였다. 다윈의 예상대로 연구 도중 갑자기 폭풍우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재빨리 비글호로 돌아가기 위해 거센 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겨우 배에 올라 온 후, 심한 배 멀미를 하던 다윈은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심즈는 자신의 주인인 다윈을 구하기 위해 작은 몸을 이끌고 풍랑에 맞서 다윈을 구하려 했지만 심즈 역시 물살에 휩쓸려 균형을 잃고 바다 한 가운데에서 길을 잃었다. 해안선을 따라 계속해서 휩쓸려 가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날개 달린 생명체가 나타나더니 그의 몸을 집어 올려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미지의 새는 다시 돌아왔고 익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심즈를 바닷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놓았다.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심즈에게 남은 것은 이제 부츠 한 짝과 바이올린 하나뿐이었다. 온몸에는 피 멧힌 상처가 가득했고 다리의 힘도 완전히 빠진 상태였다. 주변에 있는 이구아나들을 보니 최소한 이 곳이 다른 외딴 섬이 아니라 갈라파고스 섬임은 분명해 보였다. 낮선 곳에서의 첫날 밤 심즈는 다윈의 고통스러워 보였던 마지막 표정을 생각하며 멍하니 있다가 작은 고양이만한 녹색 도마뱀 한 마리가 자기 다리 위에 올라 오는 것을 느꼈다. 첫 만남 이후 그 도마뱀은 심

즈가 어딜 가든 그를 뵈히 바라보며 쫓아다녔고 지네에게 물린 심즈의 몸에서 독을 빼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마뱀은 심즈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주었다. 심즈는 그 낯선 생명체와 점차 신뢰를 쌓아가게 되고 그의 구리 색 눈에서 영감을 얻어 '파딩 (Farthing, 영국의 옛 동전, 화폐)'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날아다니는 괴생명체들이 심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몸집에 화려한 황금색 파충류처럼 생긴 그들은 지옥의 불길 같은 어마어마한 불을 입에서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용이었던 것이다. 파딩의 도움으로 심즈는 화산 바위 아래 용암이 흐르는 터널에 피난처를 마련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화산 때문에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심즈는 위험한 이 섬에서 어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심즈는 섬을 떠날 방법을 찾아 주변을 배회하던 중 오래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해적단들의 유골들과 그들의 것으로 보이는 버려지니 배 한 척을 찾아냈다. 배 안을 둘러보니 다행히도 그 배는 이 섬을 떠나 바다로 나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꽤 멀쩡한 상태였다. 배에서 나오기 전 심즈는 혹시 용이 주변에 없는지 고개를 내밀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려와 달리 용은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화산 활동으로 온통 시끄러웠던 섬이 너무나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심즈는 조심스럽게 바위 틈 사이로 기어 나오던 중 언젠가 다른 섬들에서 늘 마주친 적이 있었던 바다 사자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런 이빨과 한쪽 눈에 징그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던 한 녀석이 심즈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때 심즈는 다윈이 바자사자들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던 경고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다윈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존재들이었으며 그들과 싸우게 되면 자칫하다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불행히도 그 바다사자 무리들은 심즈가 자신들의 영토를 침입했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심즈와 그를 도와 싸움에 뛰어든 파딩까지 공격했다.

바다사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친 후 심즈는 어서 화산과 위험한 동물들을 피해 뗏목을 타고 섬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파딩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를 한 내륙 터널로 데려갔다. 심즈는 그곳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동굴과 황금 알 동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섬 전체에 화산 폭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용이 자신들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 동지에 도착했고 마침내 화산은 폭발하고 말았다. 동굴에도 점차 용암이 차오르자 용은 자신의 알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심즈는 용을 피해 그 알들을 대신 품에 안고 동굴 밖까지 빠져 나와 배에 올라탔다. 그러자 자신의 알들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분노한 용이 심즈의 배까지 쫓아와 배를 불에 태워버렸다. 심즈는 용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다윈과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과 스릴 넘치는 공상과학적 상상을 결합한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Lindsay Galvin (린제이 갤빈)은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심리학과 자연과학에 매료 된 후 현재는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전작으로는 『The Secret Deep』이 있다.